

# 국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여대생의 전공만족도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fluence of Major Satisfaction on th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of the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장 로 사 (Rosa Chang)\*

### 목 차

- |          |                |
|----------|----------------|
| 1. 서론    | 4. 분석결과 및 가설검증 |
| 2. 선행연구  | 5. 결론          |
| 3. 연구 설계 |                |

### 초 록

본 연구는 국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여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전공만족도 요인(교과만족, 수업만족, 관계만족, 인식만족, 일반만족 요인)을 파악하였고, 전공만족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취업효능감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만족(C.R. = 3.847,  $p < 0.001$ ), 수업만족(C.R. = 3.244,  $p < 0.01$ ), 관계만족(C.R. = 3.045,  $p < 0.01$ ), 인식만족(C.R. = 2.464,  $p < 0.05$ ) 요인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여대생의 취업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취업효능감 고집단과 저집단 간의 조절효과는  $p$ 값이 0.05보다 작은  $p = .040$ 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의 취업률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학령인구의 급감 및 대학기관평가인증에 대비하기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ABSTRACT

In this study, the factors of major satisfaction (curricular satisfaction, class satisfaction, relationship satisfaction, cognitive satisfaction, and general satisfaction factors) which influence th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s were identified by conducting a survey of female college students of the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nd whether the feeling of employment efficacy had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e major satisfaction and th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s were verified.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urricular satisfaction (C.R. = 3.847,  $p < 0.001$ ), class satisfaction (C.R. = 3.244,  $p < 0.01$ ), relationship satisfaction (C.R. = 3.045,  $p < 0.01$ ), and cognitive satisfaction (C.R. = 2.464,  $p < 0.05$ ) factors turned out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the employment behaviors of female college students of the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econd, the moderating effect between the high group and the low group in terms of employment efficacy turned out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as the  $p$  value was less than 0.05,  $p = .040$ .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be used as the useful basic data to not only improve the employment rate for the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of community colleges in Korea, but also to prepare for the rapidly declining school-age population and the Institutional Accreditation.

키워드: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여대생, 전공만족도, 취업준비행동, 취업효능감, 학령인구 감소

College,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emale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Employment Self-efficacy, Declining School Age Population

\* 숭의여자대학교 문헌정보과 조교수 (rschang120@sewc.ac.kr / ISNI 0000 0004 7707 1229)

논문접수일자: 2023년 1월 16일 최초심사일자: 2023년 2월 5일 게재확정일자: 2023년 2월 14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7(1): 263-283, 2023. <http://dx.doi.org/10.4275/KSLIS.2023.57.1.263>

\* Copyright © 2023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1. 서론

시대를 막론하고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주된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서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과 연구를 통한 지식 창출이라고 할 수 있다.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육은 다시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으로 나누어지며, 최근 한국 대학사회에서는 전공교육을 통한 직업교육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급변하는 한국의 대학생세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우리나라 대학은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인해 대학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서 혹독한 생존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2024년까지 적용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의 주요 평가지표 중 하나가 바로 취업률이며, 폐지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을 대체하여 2025년부터 시행될 대학기관평가인증의 평가요소에도 취·창업 지원 및 성과는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전문대학교의 교육목적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쳐 국가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 및 공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문대학교는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실무와 이론 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 고등직업교육훈련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일반 종합대학교와 대비되는 전문대학교의 특성으로서 이에 전문대학교는 일반 종합대학교보다 취업률이 더욱 중요하다.

즉, 한국 대학사회에서 취업률은 곧 대학의 경쟁력이자 생존전략이 되고 있으며, 이의 영향으로 최근 학계에서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학과 및 대학 취업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준비행동 간

의 영향 관계를 검증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전자옥, 2020; 정봉희, 오지현, 2021).

그러나 아직 국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에 초점을 맞춰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전공만족도 요인을 규명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전공만족도 요인을 파악하였고, 전공만족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취업효능감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전문대학교와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향후 후속연구로서 4년제 대학교나 남녀 대학생 모두를 포함하여 문헌정보과 재학생의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전공만족도 요인을 검증한 연구를 제안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들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국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에 전달되어 학과 취업률의 제고 및 학령인구의 급감에 대비하기 위한 초석 마련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 2. 선행연구

국내·외에서 대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전공만족도와 취업효능감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전공만족도 혹은 취업효능감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고 있다.

먼저 국외의 선행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Jurgens(2000)는 대학생은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더욱 확신을 갖고 효과적으로 진로 결정을 내린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관점에서 Graunke & Woosley(2005)도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학업 성취도와 더불어 진로계획의 확실성에도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외에 Logue(2005)도 전공만족도는 진로를 결정할 때 핵심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으며,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인적 특성과 학문적 환경에 따라 전공만족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Nauta(2007)가 수행한 연구에서 Academic Major Satisfaction Scale (AMSS)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측정하고,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긍정적인 연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취업준비행동과 관련된 연구로서 Bum & Lee(2018)의 연구에서 교수의 격려와 지도를 받은 체육교육 전공 대학생일수록 자아 리더십 행동이 증가하고, 이는 취업준비행동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근 August(2020)는 개인적 특성이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 개인적 특성 요인 가운데 낙관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융화가 잘되는 대학생일수록 취업준비행동이 높은 것으로 규명되었다.

다음으로 국내에서 수행된 선행연구들을 상세하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김미숙(2015)은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전공만족도(교과만족, 관계만족, 인식만족, 일반만족, 진로조사), 전공수업 몰입경험, 진로탐색효능감(직업

탐색효능감, 면접효능감, 관계구축효능감, 개인적탐색효능감)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규명하였다. 그 결과,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교과만족, 관계만족, 일반만족이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진로탐색효능감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직업탐색효능감과 관계구축효능감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리고 한의진(2017)은 광주광역시 소재 한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학과만족도, 직업탐색행동, 취업준비행동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학과만족도(교과만족, 관계만족, 인식만족, 일반만족)가 직업탐색행동과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과만족도 하위요인 중에서 일반만족과 교과만족은 직업탐색행동과 취업준비행동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관계만족은 취업준비행동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김보람(2018)은 관광 관련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교과만족, 관계만족, 인식만족, 수업만족)가 취업준비행동(전공 관련 준비행동, 교내적 준비행동, 교외적 준비행동)과 직업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취업준비행동이 직업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전공 관련 준비행동에는 전공만족도의 교과만족, 관계만족, 인식만족, 수업만족 모두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교내적 준비행동과 교외적 준비행동에는 전공만족도의 관계만족과 수업만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미선, 김한나(2019)는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소재의 4년제 또는 2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전공만족도와 진로상담이 전공일치 취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미치는 조절효과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진로상담 유무는 전공일치 취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와 진로상담 유무가 전공일치 취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그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에 수행된 연구로서 전자옥(2020)은 서울 및 경기도 소재 4년제 대학교의 체육전공 여자대학생의 학과만족도(교과만족, 관계만족, 일반만족, 학교만족, 사회만족)가 취업준비행동(교내 취업 준비행동, 전공 관련 취업준비행동) 및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함께 취업준비행동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보았다. 검증결과, 학과만족도의 하위요인 중에서 일반만족이 교내활동 관련 취업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만족도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일반만족, 교과만족, 학교만족이 전공 관련 취업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래 정봉희, 오지현(2021)은 경기도에 위치한 2년제 대학교의 비서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전공만족도(교과만족, 관계만족, 인식만족, 일반만족), 직업가치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자기평가, 정보수집, 문제해결, 미래계획, 목표선택)이 취업준비행동(예비적 취업준비행동, 본격적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예비적 취업준비행

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전공만족도 요인은 인식만족이었으며, 본격적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전공만족도 요인은 인식만족과 관계만족인 것으로 규명되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가운데 목표설정과 미래계획은 예비적, 본격적 취업준비행동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더불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수행된 취업 관련 선행연구로서 이종문(2012)은 전반적인 문헌정보학계의 취업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K대학 문헌정보학 전공 졸업자 178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취업실태를 분석하였으며, 문제점으로 취업률의 저조, 높은 비정규직 취업률, 낮은 전공일치도를 지적하였다. 향후 개선방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도서관 일자리 창출, 학생 측면에서의 정보 분야 일자리 이해 및 체험 기회 제공, 교수 차원에서의 전공 분야에 대한 일자리 개발 및 지도 등을 제안하였다.

문헌정보학 전공 대학생의 취업 및 진로지도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최근 남재우, 이수영(2022)은 문헌정보학 전공 대학생의 사서직에 대한 전문성 인식 및 진로역량 수준을 조사하였으며, 진로역량이 사서직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사서직을 전문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진로역량의 수준은 일반 대학생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진로역량은 사서직 진로결정에 자기성찰, 진로관리, 네트워킹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앞에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전공만족도와 취업효능

감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검증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문헌정보학계에서 취업은 오랫동안 주요 연구 대상이었으나, 아직까지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여대생에 초점을 맞춰 이를 검증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취업률은 전문대학교의 강점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며, 학령 인구의 급감에 대비하여 학과의 존폐를 결정지을 수 있는 잣대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여대생에 초점을 맞춰 과연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전공만족도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였으며, 전공만족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취업효능감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 3. 연구 설계

본 장에서는 국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여대생의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전공만족도 요인과 취업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변수(독립변수, 조절변수, 종속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을 확립하였다. 또한, 연구대상 및 설문 구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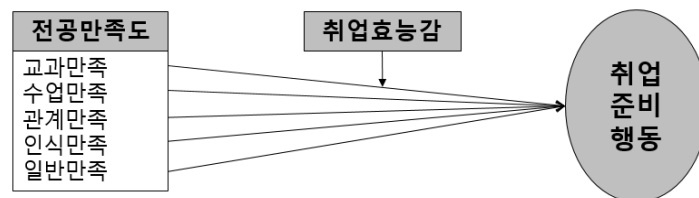
#### 3.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앞의 2장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전공만족도 요인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전공만족도 요인을 교과만족, 수업만족, 관계만족, 인식만족, 일반만족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전공만족도 5가지(교과만족, 수업만족, 관계만족, 인식만족, 일반만족)의 요인 중에서 국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여대생의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취업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또한, 본 연구의 가설은 총 6개로서 이를 종합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본 연구의 변수는 크게 독립변수, 조절변수, 종속변수로 나누어지며, 이들의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 및 측정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본 연구의 변수는 5개의 독립변수와 각각 1개의 조절변수와 종속변수로 구성하였으며, 모든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은 관련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표 1〉 연구가설

가설항목	가설내용
H.1	국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여대생의 전공만족도 중에서 교과만족은 취업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국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여대생의 전공만족도 중에서 수업만족은 취업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국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여대생의 전공만족도 중에서 관계만족은 취업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국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여대생의 전공만족도 중에서 인식만족은 취업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국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여대생의 전공만족도 중에서 일반만족은 취업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국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여대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취업효능감이 조절효과를 보일 것이다.

〈표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변수		조작적 정의	측정항목	참고문헌
독립변수	전공만족도	교과만족	교과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과의 구성</li> <li>•교과의 흥미성</li> <li>•교과의 가치성</li> <li>•교과의 심화성</li> <li>•교과의 취업 관련성</li> <li>•교과와 자신과의 적합성</li> </ul>	김미숙(2015), 한의진(2017), 김보람(2018), 전자옥(2020), 정봉희, 오지현(2021)
		수업만족	수업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업분위기</li> <li>•수업진행방식</li> <li>•교수의 목표성</li> <li>•교수의 전문성</li> <li>•시험의 적절성</li> <li>•학점의 공정성</li> </ul>	김보람(2018)
		관계만족	교수-학생 간의 관계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수-학생 간의 학업조언</li> <li>•교수-학생 간의 취업조언</li> <li>•교수-학생 간의 상담</li> <li>•교수-학생 간의 진로지도</li> <li>•교수-학생 간의 의사소통</li> <li>•교수-학생 간의 접촉성</li> </ul>	김미숙(2015), 한의진(2017), 김보람(2018), 전자옥(2020), 정봉희, 오지현(2021)
		인식만족	학과 인식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과의 인기도</li> <li>•학과에 대한 자긍심</li> <li>•학과에 대한 인지도</li> <li>•졸업 후 진로에 도움</li> <li>•졸업 후 전공 관련 진학·취업의지</li> <li>•졸업 후 사회생활에서의 유리함</li> </ul>	김미숙(2015), 한의진(2017), 김보람(2018), 전자옥(2020), 정봉희, 오지현(2021)
		일반만족	학과에 대해 일반적으로 만족하는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li> <li>•학과의 가치</li> <li>•학과의 비교우위</li> <li>•학과에 대한 사회적인 명성</li> <li>•학과 추천의지</li> </ul>	김미숙(2015), 한의진(2017), 이미선, 김한나(2019), 전자옥(2020), 정봉희, 오지현(2021)

변수	조작적 정의	측정항목	참고문헌	
조절 변수	취업 효능감	취업과 관련된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 믿음, 자신감의 정도	• 직업탐색활동에 대한 자신감 • 취업정보에 대한 자신감 •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 • 자신에게 맞는 직업에 대한 확신 • 직업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성 • 어려움 극복 및 인내성 • 직업선택에 대한 대안 준비성	김미숙(2015), 이미선, 김한나(2019), 정봉희, 오지현(2021)
종속 변수	취업 준비 행동	대학재학시절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 준비하는 정도	• 주변인과 취업상의 및 정보획득 • 교내 진로 및 취업센터의 상담 및 교육 • 학점관리(전공공부) • 한자, 어학공부 •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 이력서에 기재 가능한 경력 준비 • 국가고시 준비	김미숙(2015), 한의진(2017), 김보람(2018), 전자옥(2020), 정봉희, 오지현(2021)

### 3.3 연구대상 및 설문구성

본 연구는 국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여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 기간은 2022년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2주간 이루어졌고, 설문방법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총 175부가 회수되었으며, 이들 중 불성실한 응답자 및 결측값을 제외하고 총 168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인구통계학적 문항을 제외한 모든 설문 문항을 리커트(Likert)형 5점 척도로 설계하였다. 설문 구성은 크게 4개의 부분으로 나

누었으며, 문항은 총 45개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문지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첫 번째 부분은 기초조사로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으로서 총 2개의 문항을 수록하였다. 두 번째 부분은 전공만족도에 관한 설문으로서 총 29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공만족도에 대한 설문은 다시 하위요인 5가지로 나누었다. 하위요인 교과만족 요인, 수업만족 요인, 관계만족 요인, 인식만족 요인은 각각 6개의 문항, 일반만족 요인은 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세 번째 부분은 취업효능감에

<표 3> 설문 문항의 구성

구분	설문 문항 수	
개인적 특성	2	
전공만족도	교과만족	6
	수업만족	6
	관계만족	6
	인식만족	6
	일반만족	5
취업효능감	7	
취업준비행동	7	
합계	45	

대한 설문으로서 총 7개의 문항으로 분류하였다. 네 번째 부분은 취업준비행동에 관한 설문으로서 총 7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4. 분석결과 및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통계프로그램 SPSS 21과 AMOS 21을 활용하여 연구결과를 검증하였다. 세부적으로는 SPSS 21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주성분 추출방식, Varimax 회전, 요인적재치 0.4, Egien-Vaule 1.0 기준)과 신뢰도 분석(Cronbach Alpha 0.6 기준)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AMOS 21을 활용(다변량정규성, 최대우도법)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SEM: Structural Equation Model)의 경로계수를 실시하였다. 이외에 취업효능감의 평균을 기준으로 고집단과 저집단으로 구분하여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 4.1 인구통계학적 분석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첫째, 학년은

1학년이 78명(46.4%), 2학년이 90명(53.6%)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연령은 만18-29세가 158명(94%)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만 40-49세와 60대 이상이 각각 3명(1.8%), 만 30-39세와 만50-59세가 각각 2명(1.2%)으로 나타났다.

##### 4.2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 선정된 측정도구들에 대한 기술통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교과만족에 대한 분석에서는 문항6이 3.60±.82, 수업만족의 경우 문항3이 3.43±.77, 관계만족에서는 문항2가 3.50±.93, 인식만족에 대한 분석에서는 문항5가 3.24±.91, 일반만족의 경우 문항4가 3.56±.84, 취업준비에서는 문항3이 3.73±.83으로 가장 평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취업효능감에 대한 분석에서는 문항7이 2.85±.96으로 가장 높은 평균이 도출되었다.

##### 4.3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는 가설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이전에 먼저 SPSS 21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표 4> 인구통계학적 분석결과

	구분	빈도	퍼센트
학년	1학년	78	46.4
	2학년	90	53.6
연령	만18-29세	158	94.0
	만30-39세	2	1.2
	만40-49세	3	1.8
	만50-59세	2	1.2
	만60세 이상	3	1.8



〈표 5〉 기술통계 분석결과

설문문항	설문내용	M	SD
교과만족1	우리 학과의 교과목은 전반적으로 잘 편성되어 있다.	3.20	.94
교과만족2	우리 학과의 교과목은 전반적으로 흥미롭다.	3.16	.90
교과만족3	우리 학과의 교과목을 통해 가치 있는 것을 배우고 있다고 느낀다.	3.15	.94
교과만족4	우리 학과의 교과목은 전공공부를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23	.95
교과만족5	우리 학과의 교과목은 전반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된다.	3.18	.96
교과만족6	우리 학과의 교과목은 나와 잘 맞다.	3.60	.82
수업만족1	우리 학과의 수업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좋다.	3.34	.79
수업만족2	우리 학과의 수업진행방식은 나와 잘 맞다.	3.36	.73
수업만족3	우리 학과의 교수님들은 가르치려고 하는 목표를 뚜렷하고 알기 쉽게 설명한다.	3.43	.77
수업만족4	우리 학과의 교수님들은 전공 분야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갖고 있다.	3.32	.73
수업만족5	전공시험은 적절한 양으로 주어지고 공부에 도움이 된다.	3.21	.77
수업만족6	학점은 신중하고 공정하게 주어진다.	3.29	.77
관계만족1	학과 영역에 있어서 공부하는 방법이나 내용에 대해 교수님의 조언을 들을 수 있다.	3.35	.67
관계만족2	우리 학과 교수님들은 편입, 자격증 등 진학이나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신다.	3.50	.93
관계만족3	교수님과의 개인 상담이나 집단상담은 취업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된다.	3.24	.66
관계만족4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지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3.43	.71
관계만족5	교수-학생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3.39	.68
관계만족6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교수님과 연락하거나 만날 수 있다.	3.20	.81
인식만족1	내가 속한 학과는 인기학과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3.01	.98
인식만족2	나는 내가 속한 학과를 사람들에게 뽐낼듯하게 말한다.	2.95	.90
인식만족3	우리 가족은 내가 속한 학과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2.98	.96
인식만족4	졸업 후의 진로에 지금의 학과가 도움이 된다.	3.17	.95
인식만족5	졸업 후 내가 속한 학과와 관련된 진학이나 취업을 할 것이다.	3.24	.91
인식만족6	우리 학과를 졸업했다는 배경이 사회생활에 유리할 것이다.	2.95	.90
일반만족1	나는 우리 학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3.46	.81
일반만족2	내가 속한 학과는 다남만한 학과라고 생각한다.	3.40	.78
일반만족3	다른 학과와 비교해볼 때 우리 학과는 좋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3.54	.79
일반만족4	많은 사람들이 내가 속한 학과에 진학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3.56	.84
일반만족5	나는 내가 속한 학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해줄 것이다.	3.49	.76
취업준비1	나는 가족이나 지인(교수, 친구, 선후배 등)과 취업 관련해서 의논하며 정보를 얻는다.	2.81	.83
취업준비2	나는 교내 진로 및 취업센터에서 검사, 상담, 특강, 교육 등을 받아 도움을 받는다.	3.32	.79
취업준비3	나는 전공공부를 열심히 함으로써 학점관리를 한다.	3.73	.83
취업준비4	나는 한자나 어학공부를 열심히 한다.	3.12	.88
취업준비5	나는 전공과 관련된 각종 자격증 취득 준비를 한다.	2.92	.95
취업준비6	나는 이력서에 포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력(대회, 공모전, 인턴십, 실습, 자원봉사, 아르바이트 등)을 준비한다.	3.12	.87
취업준비7	나는 공무원시험과 같은 국가고시를 준비한다.	3.57	.83
취업효능감1	나는 다양한 직업을 조사함으로써 직업탐색활동을 할 수 있다.	2.56	.76
취업효능감2	나는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검색 및 수집할 수 있다.	2.58	.80
취업효능감3	나는 나의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2.43	.87
취업효능감4	나는 나에게 어떤 직업이 잘 맞는지 알고 있다.	2.55	.75
취업효능감5	나는 나의 직업목표를 이루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2.55	.80
취업효능감6	나는 힘든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목표하는 진로나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수 있다.	2.45	.87
취업효능감7	나는 만약에 내가 선택한 진로나 직업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다른 진로나 직업으로 바꿀 수 있다.	2.85	.96

실시함으로써 측정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성분 추출방식의 요인추출 방법과 Varimax 회전의 요인회전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요인분석 시에 다른 요인에 적재되거나 요인 적재치가 0.4 미만인 항목은 제외하였다. 또한, AMOS 21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측정항목

에 대하여 요인별 단일차원성 및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였다.

4.3.1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선정한 측정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표 6>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구성요소					
	1	2	3	4	5	6
교과만족1	.908					
교과만족3	.902					
교과만족5	.893					
교과만족4	.877					
교과만족2	.476					
인식만족2		.885				
인식만족6		.880				
인식만족3		.874				
인식만족1		.837				
일반만족3			.819			
일반만족1			.784			
일반만족2			.781			
일반만족5			.643			
수업만족5				.770		
수업만족1				.724		
수업만족4				.717		
수업만족6				.629		
관계만족5					.741	
관계만족4					.718	
관계만족1					.713	
관계만족3					.665	
취업준비1						.719
취업준비5						.707
취업준비2						.693
취업준비4						.616
취업준비6						.457
Eigen-value	4.199	3.691	3.163	2.839	2.835	2.713
설명분산(%)	16.151	14.195	12.167	10.919	10.905	10.434
누적분산(%)	16.151	30.347	42.514	53.432	64.337	74.771
Cronbach Alpha	.951	.943	.849	.840	.821	.853

KMO=.881, Bartlett's  $\chi^2=4131.602$ , df=325

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만족은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아이겐 값은 4.199, 설명분산은 16.151%로 나타났다. 둘째, 인식만족은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아이겐 값은 3.691, 설명분산은 14.195%로 확인되었다. 셋째, 일반만족은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아이겐 값은 3.163, 설명분산은 12.167%로 파악되었다. 넷째, 수업만족은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아이겐 값은 2.839, 설명분산은 10.919%로 집계되었다. 다섯째, 관계만족은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아이겐 값은 2.835, 설명분산은 10.905%로 조사되었다. 여섯째, 취업준비행동은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아이겐 값은 2.713, 설명분산은 10.434%로 파악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시의 판단기준은 첫째, 변수들에 대한 아이겐(eigen-value) 값이 1.0을 상회하고 있는 경우에 변수들이 명확히 분류된 것으로 간주한다. 둘째, 누적분산의 요인 적재치가 0.4보다 큰 경우에 동일 요인의 측정변수 간의 집중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이 검증된 것으로 판단한다. 측정변수들의 평가 차원 내에서 항목 간의 내적 일관성을 의미하는 개념이 집중 타당성이며, 평가 차원 간의 독립성을 뜻하는 개념이 판별 타당성이다.

위의 판단기준으로 본다면, 아이겐 값은 최소 2.713(10.434%)에서 최대 4.199(16.151%)로 1.0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변수들이 명확히 분류되었다. 누적분산이 74.771%로서 요인 적재치(1, 2, 3, 4, 5, 6 성분)가 모두 0.4보다 크게 나타나 동일 요인의 측정변수 간의 집중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이 모두 검증되었다. KMO의 수치는 .881,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에서는 카이제곱값이 4131.602(df=325)

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크론바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크론바 알파값의 신뢰도 판단기준을 Nunnally (1978)는 탐색적인 연구 분야의 경우 0.60, 기초 연구 분야의 경우 0.80, 응용연구 분야의 경우 0.90 이상으로 제시하였다. Van & Ferry(1980)는 일반적인 조직단위의 분석수준에서는 크론바 알파값이 0.60 이상이면 측정 도구의 신뢰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위의 판단기준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6개 모든 요인의 크론바 알파값이 0.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확보됨으로써 측정 도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4.3.2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의 측정항목에 대한 요인별 단일차원성 및 통계적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hi^2=572.332$ ,  $df=283$ ,  $\chi^2$ 에 대한  $p$ 값=0.000, 비교부합지수(CFI: Comparative Fit Index)=0.929, 원소 간 평균 차이(RMR: Root Mean-Square Residual)=0.055, 증분적합지수(IFI: Incremental Fit Index) 표준적합지수(NFI: Normed Fit Index)=0.869 등과 같은 통계수치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 시의 판단기준은 첫째, 비교부합지수(CFI)와 표준적합지수(NFI)의 값이 0.9보다 크면 우수하고 0.8보다 크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 둘째,  $\chi^2$ 값은 작을수록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증분적합지수(IFI)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양호하다고 판단한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본 연구의 비교부합지

〈표 7〉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Estimate	S.E.	C.R.	p	AVE	CCR
교과만족	--> 교과만족2	1.000				.837	.962
	--> 교과만족4	1.689	.183	9.218	***		
	--> 교과만족5	1.678	.184	9.128	***		
	--> 교과만족3	1.694	.183	9.259	***		
	--> 교과만족1	1.744	.186	9.384	***		
인식만족	--> 인식만족1	1.000				.795	.938
	--> 인식만족3	1.020	.033	30.608	***		
	--> 인식만족6	.725	.053	13.812	***		
	--> 인식만족2	.740	.052	14.181	***		
일반만족	--> 일반만족5	1.000				.705	.905
	--> 일반만족2	1.116	.127	8.802	***		
	--> 일반만족1	1.175	.131	8.936	***		
	--> 일반만족3	1.259	.131	9.643	***		
수업만족	--> 수업만족6	1.000				.693	.900
	--> 수업만족4	.886	.087	10.223	***		
	--> 수업만족1	.939	.094	9.967	***		
	--> 수업만족5	.865	.093	9.260	***		
관계만족	--> 관계만족3	1.000				.716	.909
	--> 관계만족1	1.121	.139	8.058	***		
	--> 관계만족4	1.153	.147	7.868	***		
	--> 관계만족5	1.264	.145	8.727	***		
취업준비	--> 취업준비6	1.000				.609	.886
	--> 취업준비4	1.057	.101	10.448	***		
	--> 취업준비2	.798	.092	8.638	***		
	--> 취업준비5	1.000	.111	9.038	***		
	--> 취업준비1	.908	.097	9.391	***		

$\chi^2=572.332$ ,  $df=283$ ,  $p=0.000$ ,  $CMIN/DF=2.022$ ,  $CFI=0.929$ ,  $RMR=0.055$ ,  $IFI=0.929$ ,  $TLI=0.918$ ,  $NFI=0.869$ ,  $RMSEA=0.078$

\*\*\* $p<0.001$

수(CFI)는 0.929, 표준적합지수(NFI)는 0.869로서 권장치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Chi-square 값( $\chi^2=572.332$ )도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증분적합지수(IFI)의 값 역시 0.929로서 모든 적합도 지수들이 기준치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로서 구조모델 추정에 대한 기각비(C.R.: critical ratio)의 크기를 절대값이 1.96 이상 기준으로 해석한다면,

본 연구의 모형은 각 측정변수의 기각비(C.R.)가 1.96을 크게 초과하며, 유의수준  $p<0.001$ 에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 4.4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선정된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상관관계 분석결과

요인명	교과만족	수업만족	관계만족	인식만족	일반만족	취업준비행동
교과만족	1					
수업만족	.465**	1				
관계만족	.453**	.588**	1			
인식만족	.530**	.349**	.361**	1		
일반만족	.416**	.574**	.537**	.265**	1	
취업준비행동	.631**	.612**	.610**	.507**	.474**	1

\*\*p<0.01

첫째, 교과만족 요인의 경우에는 취업준비 행동과  $r=.631$ 의 가장 높은 유의미한 상관 수치를 보여주었으며, 다음으로는 인식만족 요인과  $r=.530$ , 수업만족 요인과  $r=.465$ , 관계만족 요인과  $r=.453$ , 일반만족 요인과  $r=.416$ 의 순으로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업만족 요인은 취업준비행동과  $r=.612$ 의 가장 높은 정적(+)인 상관 수치를 보여주었으며, 다음으로는 관계만족 요인과  $r=.588$ , 일반만족 요인과  $r=.574$ , 인식만족 요인과  $r=.349$ 의 순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관계만족 요인의 경우에는 취업준비행동과  $r=.610$ 의 가장 높은 유의미한 상관 수치를 보여주었으며, 다음으로는 일반만족 요인과  $r=.537$ , 인식만족 요인과  $r=.361$ 의 순으로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인식만족 요인은 취업준비행동과  $r=.507$ , 일반만족 요인과  $r=.265$ 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일반만족 요인의 경우에는 취업준비행동과  $r=.474$ 의 통계적으로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종합하여 본

다면,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4.5 가설검증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여대생의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전공만족도 요인(교과만족, 수업만족, 관계만족, 인식만족, 일반만족)을 파악하고, 취업효능감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구조방정식(SEM)의 경로계수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검증결과, 기각비(C.R.)의 절대값이 1.96 이상이고, p값이 0.05보다 작은 가설 H.1(교과만족), H.2(수업만족), H.3(관계만족), H.4(인식만족)가 채택되었다. 반면에 기각비(C.R.)의 절대값이 1.96 이하이고, p값이 0.05보다 큰 가설 H.5(일반만족)는 기각되었다.

또한, 기각비(C.R.)의 절대값이 클수록 영향력이 큰 것으로 판단하기에 취업준비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요인은 교과만족(3.847)이며, 다음으로는 수업만족(3.244), 관계만족(3.045), 인식만족(2.464) 순으로 확인되었다.

〈표 9〉 가설검증결과

가설번호	가설	Estimate	S.E.	C.R.	p	채택
H.1	교과만족 --> 취업준비행동	.359	.093	3.847	***	채택
H.2	수업만족 --> 취업준비행동	.379	.117	3.244	.001**	채택
H.3	관계만족 --> 취업준비행동	.491	.161	3.045	.002**	채택
H.4	인식만족 --> 취업준비행동	.112	.045	2.464	.014*	채택
H.5	일반만족 --> 취업준비행동	-.053	.113	-.464	.643	기각

$\chi^2=572.332$ ,  $df=283$ ,  $p=0.000$ ,  $CMIN/DF=2.022$ ,  $CFI=0.929$ ,  $RMR=0.055$ ,  $IFI=0.929$ ,  $TLI=0.918$ ,  $NFI=0.869$ ,  $RMSEA=0.078$

\*\*\* $p<0.001$ , \*\* $p<0.01$ , \* $p<0.05$

채택된 가설의 세부적인 결과 및 이를 토대로 도출한 실무적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H.1로서 국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여대생의 전공만족도 교과만족은 기각비(C.R.)의 값이 3.847( $p<0.001$ )로 나타나 취업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여대생의 전공만족도 교과만족이 높아질수록 취업준비행동은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국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여대생의 취업준비행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과만족이 전공만족도 요인 가운데 취업준비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기에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앞의 4.2절 본 연구에서 선정한 측정도구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 교과만족은 문항6(우리 학과의 교과목은 나와 잘 맞다)이  $3.60\pm.82$ 로 나타나 교과만족 항목 중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다. 다음으로 문항4(우리 학과의 교과목은 전공공부를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가  $3.23\pm.95$ 로 파악되어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교과만족은 교과에 자신과의 적합성과 교과 심화성에 높은 만족감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여대생의 취업준비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 교과만족 측면에서 주목되는 점은 무엇보다 학과 커리큘럼의 구성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교육과정 개편 시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나 간담회를 실시하여 실제 요구사항들을 적극 커리큘럼에 반영함으로써 학생들의 교과에 대한 흥미와 전공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더불어 직업전문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교 이기에 이론 중심의 교과보다는 실무 중심의 교과로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도서관 실무 현장에서 중요하면서도 빈번하게 수행하게 되는 실무문서작성(사업 기획서,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예산서 등)과 관련된 교과를 개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학생들 스스로 취업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과라고 인식하게 함으로써 교과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취업 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설 H.2로서 국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여대생의 전공만족도 수업만족은 기각비(C.R.)의 값이 3.244( $p<0.01$ )로 나타나 취업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국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여대생의 전공만족도 수업만족이 높아질수록 취업준비행동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의 기술통계의 수업만족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문항3(우리 학과의 교수님들은 가르치고 하는 목표를 뚜렷하고 알기 쉽게 설명한다)이  $3.43 \pm .77$ , 문항2(우리 학과이 수업진행방식은 나와 잘 맞다)가  $3.36 \pm .73$ 의 순으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수업만족은 수업진행방식의 자신과의 적합성과 교수의 전문성에 높은 만족감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도출한 국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여대생의 취업준비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수업만족 측면에서의 시사점은 학생성장 중심의 수업 운영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수업진행방식에 있어서 학생들이 배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성장의 경험이 될 수 있는 과제, 발표, 토론, 시험 등을 수행하게 한다면, 학생 스스로가 수업을 통해 자신의 성장가능성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그만큼 수업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다. 특히 대학 재학 시절의 발표를 통한 성장 경험은 취업 시 면접과 관련해서도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전문대학교는 직업교육의 산실이기 때문에 교수의 전문성 차원에서 실습 과목의 경우에는 도서관 실무 경력이 있는 교·강사가 담당하도록 한다면, 수업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실제 도서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수업시간을 통해 접하게 함으로써 취업 의지를 갖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설 H<sub>3</sub>으로서 국내 전문대학교 문헌

정보과 여대생의 전공만족도 관계만족은 기각비(C.R.)의 값이  $3.045(p < 0.01)$ 로 나타나 취업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로써 국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여대생의 전공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취업준비행동은 증가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앞의 관계만족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에서 문항2(우리 학과 교수님들은 편입, 자격증 등 진학이나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신다)가  $3.50 \pm .93$ 으로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즉,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관계만족은 교수의 진학이나 취업정보 공유 주도에 높은 만족감을 갖는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여대생의 취업준비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 관계만족 측면에서 주목되는 점은 2년이라는 짧은 전문대학교 재학시절 동안에 학생들의 취업의지를 강화하고 실제 취업준비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큰 동력은 바로 교수-학생 간의 원활한 관계를 통해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 지도교수는 학생 개인별로 진정성 있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진로지도 및 취업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졸업하기 전에 학생이 소질과 적성을 찾아 진로나 진학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집단상담 시에는 상대적으로 취업의지가 약한 경우에는 이미 취업 준비를 시작한 다른 학생과 만나게 함으로써 동기부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관계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최근 전문대학교에는 성인학습자나 만학도 학생이 뚜렷하

게 증가하고 있기에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진로지도 및 취업상담이 필요할 것이다. 전문대학교의 특성상 취업률은 대학평가 시에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는데, 특히 주부 성인학습자나 50대 이상의 만학도 학생은 취업률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다행히 요즘 실버 세대를 겨냥한 사회적 일자리의 일환으로서 도서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기에 지도교수는 상담 시에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을 독려해야 한다.

넷째, 가설 H.4로서 국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여대생의 전공만족도 인식만족은 기각비(C.R.)의 값이 2.464( $p < 0.05$ )로 나타나 취업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여대생의 전공만족도 인식만족이 높아질수록 취업준비행동은 증가한다는 것을 뜻한다.

앞의 본 연구에서 선정한 측정도구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 인식만족은 문항5(졸업 후 내가 속한 학과와 관련된 진학이나 취업을 할 것이다)가  $3.24 \pm .91$ 로 나타나 인식만족 항목 가운데 평균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문항4(졸업 후의 진로에 지금의 학과가 도움이 된다)가  $3.17 \pm .95$ 로 규명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인식만족은 전공 관련 취업, 진로와 전공의 관련성에 높은 만족감을 보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도출한 국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여대생의 취업준비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인식만족 측면에서의 시사점은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진학이나 취업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문헌정보과에서 양성하는 전문사서 및 정보전문가는 고도화된 지식정보사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력으로서 미래 유망 직업이라는 사실을 수업시간이나 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인지하도록 지도하여 인식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문헌정보과 졸업생이 취업할 수 있는 실제적인 채용공고 및 동문의 취업 합격 소식을 신속하게 학과 구성원들에게 공유하고, 학과 프로그램으로서 재학생-졸업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학생들의 취업의지와 자신감을 고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역량 및 취업에 대한 의지를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학과 취업률의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설 H.6으로서 국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여대생의 취업효능감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조절효과 평균을 기준으로 취업효능감 고집단과 취업효능감 저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10>, <표 11>과 같다.

그 결과, 취업효능감 고집단과 저집단 간의 조절효과는 p값이 0.05보다 작은  $p = .040$ 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검증됨으로써 가설 H.6은 채택되었다. 이에 우선적으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구분한 집단의 세부적인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취업효능감 고집단과 저집단의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면, 취업효능감 고집단에서만 기각비(C.R.)의 절대값이 1.96 이상이고, p값이 0.05보다 작은 교과만족(2.777,  $p < 0.01$ ), 수업만족(3.081,  $p < 0.01$ ), 관계



〈표 10〉 취업효능감 고집단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가설 번호	가설		취업효능감 고집단			
			Estimate	S.E.	C.R.	p
H.6	교과만족	-> 취업준비행동	.497	.179	2.777	.005**
	수업만족	-> 취업준비행동	.623	.202	3.081	.002**
	관계만족	-> 취업준비행동	.338	.165	2.055	.040*
	인식만족	-> 취업준비행동	.083	.053	1.557	.120
	일반만족	-> 취업준비행동	-.206	.124	-1.662	.097

CMIN=11.630, Df=4, p=.040, NFI-Delta=.002, IFI-Delta=.003, RFI-rho=.001

\*\*p<0.01, \*p<0.05

〈표 11〉 취업효능감 저집단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가설 번호	가설		취업효능감 저집단			
			Estimate	S.E.	C.R.	p
H.6	교과만족	-> 취업준비행동	.204	.127	1.608	.108
	수업만족	-> 취업준비행동	-.043	.172	-.249	.804
	관계만족	-> 취업준비행동	.485	.259	1.871	.061
	인식만족	-> 취업준비행동	.192	.073	2.635	.008**
	일반만족	-> 취업준비행동	.775	.372	2.082	.037*

CMIN=11.630, Df=4, p=.040, NFI-Delta=.002, IFI-Delta=.003, RFI-rho=.001

\*\*p<0.01, \*p<0.05

만족(2.055, p<0.05)이 취업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반해 취업효능감 저집단에서만 기각비(C.R.)의 절대값이 1.96 이상이고, p값이 0.05보다 작은 인식만족(2.635, p<0.01)과 일반만족(2.082, p<0.05)이 취업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국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여대생의 취업준비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 취업효능감 고집단과 저집단 간의 조절효과 측면에서 주목되는 점은 취업효능감 집단 간의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다. 이에 취업효능감 저집단은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이전에 학과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도와 자신감을 고취하는데 주력해야 한

다. 반면에 취업효능감 고집단은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과를 운영하고, 수업이나 상담 시간을 활용하여 교수-학생 간의 관계를 통해 취업준비행동에 박차를 가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5. 결 론

현재 국내 대학들은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학령인구 감소 현상이 맞물리면서 생존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다. 오래전부터 횡행했던 지방대학 위기의 자조적 표현으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 문을 닫는다.' 또는 '벚꽃 엔딩'이라는 말이 이제는 현실이 되고 있다.

2024년까지 적용되는 대학기본역량진단 시에 졸업생 취업률은 대학의 존폐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이며, 폐지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을 대체하여 향후 2025년부터 시행될 대학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거에도 취·창업 지원 및 성과는 포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가 생존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전공만족도 교과만족, 수업만족, 관계만족, 인식만족, 일반만족 요인 중에서 국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여대생의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였고, 취업효능감의 조절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먼저 교과만족( $C.R. = 3.847, p < 0.001$ ), 수업만족( $C.R. = 3.244, p < 0.01$ ), 관계만족( $C.R. = 3.045, p < 0.01$ ), 인식만족( $C.R. = 2.464, p < 0.05$ ) 요인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여대생의 취업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요인은 교과만족(3.847)이며, 다음으로는 수업만족(3.244), 관계만족(3.045), 인식만족(2.464) 순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취업효능감 고집단과 저집단 간의 조절효과는  $p$ 값이 0.05보다 작은  $p = .040$ 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취업효능감 고집단에서만 교과만족(2.777,  $p < 0.01$ ), 수업만족(3.081,  $p < 0.01$ ), 관계만족(2.055,  $p < 0.05$ )이 취업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취업효능감 저집단에서만 인식만족(2.635,  $p < 0.01$ )과 일반만족(2.082,  $p < 0.05$ )이 취업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토대로 도출한 실무적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만족 측면에서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학과 커리큘럼에 반영하고, 실무 중심의 교과를 편성함으로써 교과만족도를 높여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여대생의 취업준비행동을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만족이 전공만족도 요인 중에서 취업준비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검증되었기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수업만족 측면에서 학생성장 중심의 수업을 운영하고, 교수의 전문성 차원에서 실습 과목은 도서관 현장 실무 경력이 있는 교·강사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수업만족도를 높여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여대생의 취업준비행동을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관계만족 측면에서 진정성과 더불어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을 실시하고, 성인학습자와 만학도 학생은 맞춤형 진로지도 및 취업상담을 실시함으로써 관계만족도를 높여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여대생의 취업준비행동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인식만족 측면에서 학과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하여 진학이나 취업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실제적인 사서 관련 채용 공고 및 동문의 취업 합격 소식을 신속하게 공유하며, 재학생-졸업생 멘토링 학과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인식만족도를 높여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여대생의 취업준비행동을 증가시켜야 한다.

다섯째, 취업효능감 저집단과 고집단으로 구분하여 저집단의 경우에는 취업역량을 강화하

기 전에 학생의 자존감 및 일반적인 학과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이에 반해서 취업효능감 고집단의 경우에는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과를 운영하고, 수시로 수업시간이나 상담을 통해 교수-학생 간의 신뢰감 있는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취업의지를 고취하면서 취업준비행동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 및 제언하면, 변화하는 고등교육 생태계에 전문대학교가 대비하기 위해서 취업률은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된다. 본 연구의 핵심은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여대생의 취업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전공만족도 요인(교과만족, 수업만족, 관계만족, 인식만족 요인)을 밝혀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학과 취업 특강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교과만족, 수

업만족, 관계만족, 인식만족 전반적인 측면에서의 전략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방점은 학생 중심 교육 실천에 있다. 특히 교수-학생 간의 관계만족 측면에서 교수자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으며, 학생 개인별 맞춤형 지도는 학생들의 취업의식을 고취시키고 취업준비행동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학과 취업률은 입학경쟁률과도 관계가 있기에 전공만족도의 향상이 선행된 취업준비행동을 강화함으로써 학과 운영 차원에서 선순환(Virtuous Cycle)의 창출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들의 취업률을 향상시킴으로써 학령인구의 급감 및 대학기관평가인증에 대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 김미숙 (2015).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전공수업 몰입경험 및 진로탐색효능감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진로직업상담학과.
- 김보람 (2018). 관광관련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취업준비행동과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관광경영학과.
- 남재우, 이수영 (2022). 문헌정보학전공 대학생의 진로역량이 사서직 진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3(6), 244-251. <https://doi.org/10.5762/KAIS.2022.23.6.244>
- 이미선, 김한나 (2019).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진로상담이 전공일치 취업결정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취업진로연구, 9(1), 33-53. <https://doi.org/10.35273/jec.2019.9.1.002>
- 이종문 (2012). 문헌정보학전공 졸업자의 취업실태 분석 연구: K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

- 지, 23(4), 125-139.
- 전자옥 (2020). 체육전공 여자대학생의 학과만족이 취업준비행동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 정봉희, 오지현 (2021). 전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직업가치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비서학 전공 전문대학생을 중심으로. 취업진로연구, 11(2), 131-152.  
<http://doi.org/10.35273/jec.2021.11.2.006>
- 한의진 (2017). 대학생의 학과만족도가 직업탐색행동과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1(7), 121-134.  
<https://doi.org/10.21298/IJTHR.2017.07.31.7.121>
- August, R. A. (2020). Understanding career readiness in college student-athletes and identifying associated personal qualitie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47(2), 177-192.  
<https://doi.org/10.1177/0894845318793936>
- Bum, C. H. & Lee, K. (2018). The relationships between professors' super-leadership, self-leadership,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college students. *Sport Mont*, 16(2), 39-44.  
<http://doi.org/10.26773/smj.180607>
- Graunke, S. S. & Woosley, S. A. (2005). An exploration of the factors that affect the academic success of college sophomores. *College Student Journal*, 39(2), 367-376.
- Jurgens, J. C. (2000). The undecided student: the effects of combining levels of treatment parameters on career certainty, career indecision, and client satisfaction.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8, 237-250. <http://doi.org/10.1002/j.2161-0045.2000.tb00289.x>
- Logue, C. T.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raits, Vocational Interest Themes, and College Major Satisfaction. Doctoral dissertation, Tennessee University, United States.
- Nauta, M. M. (2007). Assessi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academic majo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5(4), 446-462. <https://doi.org/10.1177/1069072707305762>
-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 (2nd ed.). New York: McGraw Hill.
- Van, D. V. & Ferry, J. (1980). *Measuring and Assessing Organizations*. New York: Wiley.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Han, Eui-Jin (2017).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department satisfaction on job search behavior and employment-preparation behavior: centering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31(7), 121-134.

<https://doi.org/10.21298/IJTHR.2017.07.31.7.121>

- Jeon, Jaok (2020). Effects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whose Major is Physical Education, on the Behavior and of Maturation of Career Preparing for Job if they are satisfied with the Department.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outh Korea.
- Jeong, Bong-Hee & Oh, Ji-Hyun (2021). The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occupational values, and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 on job preparation behavior: focusing on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ecretarial scienc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11(2), 131-152.  
<http://doi.org/10.35273/jec.2021.11.2.006>
- Kim, Bo-Ram (2018).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nd Job Selection for Tourism-majored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South Korea.
- Kim, Mi-Suk (2015).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Satisfaction in Major, Major Flow Experience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Employment Preparation. Master's thesis, Jeonju University, South Korea.
- Lee, Jong-Moon (2012). A study on employment analysis of graduates majoring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e case of K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4), 125-139.
- Lee, Mi-Sun & Kim, Han-Na (2019). A study of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presence / absence of career counseling on the major matched employment determina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9(1), 33-53. <https://doi.org/10.35273/jec.2019.9.1.002>
- Nam, Jae-Woo & Lee, Su-Young (2022). The effect of career competency on librarianship career decision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3(6), 244-251.  
<https://doi.org/10.5762/KAIS.2022.23.6.244>

